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마음자리 空해 고정된 기준 없어요

참선중 죽는다는 의식 들어

문 참선수행하다 입정에 들면 대략 30분 경과시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의식만 남아서 머리위로 의식이 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죽어간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어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답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고 하면서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몸으로 수행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수련하는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서 하는 걸 틀리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인젠가 잘 아는 스님 한 분이 선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가셨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좌선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다면 선은 끊어진다고 봅니다. 앉았는 것도 아

"나도 공해서 돌아가고

지수화풍도 공해 돌아가니

공에다 놓으세요"

은 와선이요, 서서 하는 것은 입선이요, 일하면서 하는 것은 행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에 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모두 한데 합쳐서 참선이에요 그냥! 누가 앉을 말라나 서질 말라나요. 아니, 여유 있으면 앉기도 하고, 서서 명상도 하는 거고, 일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참선이고 누워서 생각하면 와선이니 누가 허지 말래나. 경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는 게 전부 참선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모두 거기다가 놔둡니다. 그렇듯이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이 나는 자리는 한자리니까, 그 자리에다 다 놔둬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요.

내 중심은 어느자리 있나요

문 내 중심이 붙어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답 자리가 없는 자리가 그 자리죠. 표현하자면 "논이 제일이야" 그러니깐 코가 있다 하는 소리가 "네가 뭘 제일이야. 내가 코로 냄새를 맡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고 좇아가니?" 그러면서 서로 똑같이 광광합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머리 도는 거와 마음이 모두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돌아가요. 누가 더 알고 높고가 없습니다. 우리들 열 손가락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어서퍼서 물건들 들질 못하는데, 그러니 내 마음자리가 어디 있다는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림 · 최주현

생겨서 우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접해가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기준이요,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을 찾는 거죠. 한데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기준을 세워서 무슨 일들을 해나가자. 만약에 이것이 한데 합치질 않았다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흑성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 불성이라는 거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불성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한데 합치기 때문에 합쳐서 능력이 나오는 데 그 능력의 기준을 세울 수 있나?

영원한 생명은 씨와 같고 뿌리와 같아서, 내가 항상 콩 얘기 하죠. 작년 콩을 갖다가 올해 심었더니 콩나무로 화해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콩씨를 마음의 콩씨라고 해서 그걸 찾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올해 콩이 화해서 콩나무가 됐으면 그 콩나무에서 콩이 또 열리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요, 밭갈도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고정되

게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면서도 공대무변하고 공대무변하면서도 또한, 불가사의 한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종선 · 북종선의 차이점

문 뭘로 이름을 지을 게 없어서 진이니 참이니 각을 이루었다느니 부처라느니 자유인이라느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진리의 나무, 마음은 명경의 받침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앉지 않게 하자...북종선" "진리는 본래 갖들일 나무가 없고 명경도 원래 받침대가 없는 것.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이니, 먼지가 앉을 곳 어디 있나... 남종선" 이 두 문장은 남종선과 북종선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비교를 하여 주십시오.

답 육조선사께서 그때 그렇게 칠 수 밖에 없었지요. 신수대사가 거울에

때가 까지 않도록 닦아야 한다니까, 불이 없는데 뭐 먼지 앉을게 있느냐 하는 소리는 한 물건도 없는데 때끼게 뭐 있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분들이 말로 하고 내가 또 말로 해서 되는 노릇이 아니니 말로만 배우면 뭘해요 진짜 자기가 느껴서 알고 감동이 되어야 그때는 말이 아니라 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으로만 알구 말을 한다면 그건 한 데 떨어지는 것이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병 때문에 정신 어지러워요

문 병 때문에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답 모든 것이 우리 믿음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허탕허탕 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야, 영원한 이 친구야!" 할 수 있는 정도래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로 정 말이지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무효가 되고 없고, 또 네가 없으면 내가 송장이 될거 아니니. 네가 내 시자를 끌고 멩기는데, 내가 끌고 다니는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죽는 날까지 너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겠느냐. 그러니 너만이 너를 건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아주 철철 믿어주세요. 그냥 허투루 갈광갈광해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의 호소만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란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자리가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 하죠. 뉴욕에서 병을 20년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애길 들고 선원에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병 불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봐 봐! 고쳐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만 그냥 나왔어요. 나가서 가면서 그냥 병이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지요. 좌선을 하고 뭐 빌지 다 했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말뚝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공해서 돌아가고, 지수화풍도 공해서 돌아가니가 아무리 병원에서 병 증세를 말을 해도 이롭고, 또는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롭고, 가지 못한다 간다 방장을 본다 하는 것도 관습일 따릅니다.

금전문제로 가정이 시련에...

문 가정의 금전문제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

16면으로 계속

근본향한 간절한 믿음이 자기를 지켜 열손가락 높고 낮음 없이 모두 평등

니오 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앉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조가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하니깐 회양산사는 기왓장을 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뒀 벽돌을 가시는 겁니까?" "넌 뭘 할려고 그렇게 앉았느냐?" 했을 때에 "나는 쿠쳐가 되고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고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앉았다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석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보시고 '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수행이로구나.' 해서 한두교에서 수행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죠.

행주정와 어루뎡정이라고 했듯이, 앉아서 하는 것은 좌선이요, 누워서 하는 것

이예요. 참선 아닌 게 없어요. 따로 내가 참선한다. 불공공부를 해야겠다하는데 따르는 없어요. 절대 따르는 없어.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내가 말로 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팔죽 술에다 팔죽을 수면 팔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주걱으로다가 저으면서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하고 쳤으니 이걸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다 말입니다.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가 팔죽 술이라면 팔죽 방울이 일어나는 데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 군데서 나온 거 한 군데에다 제대로 되 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하고 친 게 자기

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리가 되며 어떻게 무한의 능력이 나올까? 그래서 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에다 놔라 이거 아닙니까? 공하면서 역력히 집을 때는 집고, 먹을 때는 먹고, 기준도 없으면서도 아주 역력하게 먹고, 배고지면 먹고, 야, 집안에 든 이 없으면 또 벌어야 먹으니 역력하죠. 기준이 어딴습니까? 기준이 없으면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하나도 보지 못하네요. 금을 갖다 놔대도 아마 장남이라면 어렵도 없을 거예요. 기준이 어딴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자체는 4억9천9백99이 체가 있으면서 물목 하나의 체로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돼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라면서 다시 그것이 몸체에서

자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개별적으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일체 만물 만생이 도반인 것이다. 한방 식구인 것이다. 천리를 간들 가깝고 멀고 가 없이 한 방 식구이다. 나의 한생각이 일체 중생의 생각이고 일체 제물의 생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한 마음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법계가 돌아갈 때는 항상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일체가 하나의 법망 속에 있어서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함께한 것이다. 가령 내가 돈 한푼을 벌었다고 할 때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번 것이다. 만약 남이 없다면 어찌 한푼이 벌었겠는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살리게 되어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으며 우주와 함께 살고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또 월급 주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 상대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소치이다.>

미생물이나 식물이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숲 한 번 틀이되고 내쉬는 데에 벌써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먹고 사는 이치가 있으니 어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음을 모른다 할 것인가



가.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상대와 상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만 보아도 따로따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생이 다 거들어야 이뤄지는 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주인공에 감사할 일이다>

만약 지·수·화·풍 이런 것들 다 제각기 구해서 살라고 한다면 한시인들 어떻게 살겠는가. 본래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사생의 마음이 다 한데 합쳤기에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된 것이다. 갖가지로 정된 꾸미듯 형성된 것이다.

밤 한 그릇 지어 놓고 고맙다 할 때 어디에 감사하는 것인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고 들에 나가 일하고 또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밤 한 그

릇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는 것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공진·공생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그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있는 것을 주어야 하니 그러기에 이 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려나 나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했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만 배울 수 있겠는가.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돌볼장군은 없다.

협찬: 주인공